

農心을 담아 2025년 공공비

축미곡 매입량 추가 확보 건의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일, 농업인과 백령농협이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하여 2025년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 추가 확보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제도는 쌀 수급 안정과 더불어 이상기후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미곡을 매입하여 비축하는 제도로, 도서 및 접경지역으로 농업 여건이 열악한 웅진군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제도에 농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1일 문경복 웅진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웅진군의 열악한 농업 여건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금년도 웅진군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의 충분한 배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섬 지역 현장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백령농협이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농업인들의 서명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접경지역인 서해5도서를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애환을 이야기하고, 올해 웅진군 공공비축미곡의 매입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다.

웅진군의 한 농업인은 “농업인들도 정부시책을 최대한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에 따라 쌀 생산과 출하의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인들이 생계에 영위할 수 있도록 매입물량 배정을 요청드리며, 향후에도 정부 수매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남동구,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축제 개최

남동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한 달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9월 5일 장승백이전통시장에서 ‘막걸리 축제’가 개최되고, 12~13일 구월&인천모래내전통시장에서 ‘노박축제’가 이어진다.

9월 19~20일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바로바다 비어페스티벌’, 9월 21일에는 구월문화로상점가 및 구월골목형상점가에서 ‘아홉달, 구월달에 파다가’ 개최된다.

각 행사에서는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시원한 주류 및 각종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구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구월시장과 인천모래내전통시장, 구월문화로상점가와 구월골목형상점가는 공동으로 주최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또한, 이번 축제 기간 전통시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병행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축제의 장을 마련한 상인회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많은 분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2025년 제3차 빅웨이브 투자설명회’ 개최

제약·바이오 신생기업 투자 연계 및 성장 지원 강화

6개 기업 참가, 투자자와 1:1 상담·성장 전략 공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인천센터’)와 K-바이오랩허브 사업추진단 공동 주관한 ‘2025년 제3차 빅웨이브 프라이빗 IR’을 9월 4일 서울 강남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제약·바이오산업 신생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제약·바이오 펀드를 운용하거나 전문 심사역으로 활동하는 투자자 약 12명과 우수 바이오 창업기업 6개가 초청된 비공개 행사로, 참여 기업에는 밀도 있는 피칭과 1:1 투자 상담 기회가 제공됐다.

특히 기업별 기술력과 성장 전략

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투자 논의가 이어졌다.

참여 기업들은 신약 개발, 약물 전달기술, 혁신 플랫폼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현장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인천시와 인천센터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후속 투자 연계를 강화하고, 인천시의 전략 육성사업인 제약·바이오 분야의 지원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기업발표와 투자 상담 뿐 아니라 세미나도 함께 진행되었다. 박시형 SBI인베스트먼트 이사는 “바이오 스타트업이 주목해야 할 투자 트렌드와 전략”을 주제로 국내외 투자 환경 변화와 시사점을 공유하

여 투자가 절실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K-바이오랩허브’와의 협력으로 의미를 더했다. ‘K-바이오랩허브’는 입주기업과 펩비십기업 가운데 유망 신생기업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투자설명회 준비 과정에 힘을 보탰다.

민간 투자자 네트워크와 공공지원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 신생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 이번 협력은 인천 바이오산업 생태계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인천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핵심 분야”라며 “이번 빅웨이브 투자설명회는 단순한 투자 연계를 넘어 신생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자리였다. 앞으로도 인천센터는 유망 신생기업이 투자 혹은 한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약공원사업소는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물로 인도받은 계약대교 하부 생활체육공간(약 2,000㎡)에 테니스장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시설물 정비 시간을 제외하고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계약대교 하부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시설인 만큼 주차와 화장실 등 부대시설은 인근 계약역 공영주차장과 공공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심하린 기자

계양구-인천광역시건축사회, 업무협약

계양구(구청장 윤환)와 인천광역시 건축사회(회장 김영철)는 2일 ‘계산1동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 맞춤형 노후주거지 정비를 통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계양구는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계산동 일원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9월 말에 신청할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구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은 자율주택정비 등 분야에 자발적

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30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6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구는 유관기관 행정절차 이행 등 공모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시 건축사회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자문단으로서 주민-건축사 매칭, 사업성 분석 등 전문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환 구청장은 “계산동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건축사회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더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지 내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동구, ‘아침을 여는 청렴방송’ 운영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8월부터 간부공무원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청렴방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렴정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청렴방송은 8~10월간 매주 수요일 아침, 조직문화 개선 등 반부패·청렴실천 메시지가 담긴 청내방송을 송출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김찬진 동구청장과 부구청장을 포

함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교대로 일일 진행자로 나서 청렴 인터뷰, 청렴 사례담, 고전 속 청렴 일화 소개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청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찬진 청장은 지난달 29일 청렴방송을 통해 “청렴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떳떳해지기 위한 약속”이라며, “상호존중을 통한 일상 속 청렴을 실천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을 청취한 한 직원은 “고위공직자 분들이 청렴 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존중의 언어 사용 등 일상 속 작은 청렴부터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시용합교육원, 저경력 교사 과학탐구활동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시용합교육원(원장 심현보)은 저경력 교사의 과학탐구 지도를 지원하고 학생 맞춤형 탐구활동을 돕기 위해 3월 인천석남중학교에서 과학탐구산출물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선인장 가지 구조를 활용한 수분 포집 장치 개발을 주제로 학생 주도 탐구활동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저경력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탐구 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연

구사와 교감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산출물을 세밀히 점검하고 맞춤형 지도를 진행했으며, 저경력 교사들은 지도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효과적인 탐구 지도 방법을 배웠다.

참여 교사는 “탐구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전문가의 지도를 보며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AI융합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 맞춤형 탐구활동 지원과 저경력 교사의 탐구 지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학생과 교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의 탐구 결과는 오는 9월 대전국립중앙과학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심하린 기자

강화군, “민원인 밀착 케어 해드립니다”

간석동 약산초교 좁은 등하굣길, 1.5m 너비 안전 통학로 조성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응대 담당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응대 담당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부서의 6급 및 7급 직원들이 민원인과 가까운 위치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제도이다. 요일별로 지정된 담당자가 상시 배치되어 민원인

의 문의 접수부터 담당자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동안 민원실에서만 운영되던 이 제도는 군청 전 부서와 읍·면사무소로 확대되어, 민원인들이 담당자를 찾아 해매는 불편을 줄이고 한층 체계적인 민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군민과 공직자 간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청과 읍·면을 찾은 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불편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제갈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향상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달짝~!
뒷좌석까지 안전을 채우세요

뒷좌석 안전벨트도 CHECK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 무려 3.7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